

당의 령도 따라 민족사적인 승리와 특대사변들을

정론 위대한 승리의 2016년!

한해가 저물어간다. 이 령성과 우리 민족사에 미증유의 뚜렷한 자취를 남긴 2016년을 돌아보는 절정의 가슴가슴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새지게 끌어안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승리과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세계를 굽어보는 존엄과 영광에 있어서, 눈부신 기적과 번혁에 있어서 5000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박의 해, 전례없는 격동의 세월이었다.

오직 《위대한》이라는 말로써만 칭송할수 있는 우리의 2016년이여! 화가리엔 명화속에 담고있고 작곡가리엔 명곡으로 그리고있고 성서로써 이해의 자유자득을 우리 이제 실례하는 민심의 바다를 펼쳐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한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영광만을 펼쳐온 불멸의 2016년에 참가 《승리》라는 두 글자를 아로새기며!

1

달력으로 먼저볼까, 이 땅에 태어난 노래를 들어볼까, 온 나라 강산이 춤다하게 다루어 솜은 건축물들로 2016년의 환희와 아름다움을 걸쳐보고 싶고 지극을 위혼은 주체의 해피즘으로 지구우에 우뚝 솟은 강국의 기상을 목격했 노래하고 싶다.

뜻 잊을 2016년의 열두달이여! 세월의 인내자, 추억의 길목수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가도.

풀려온다, 새해의 서막을 장쾌하게 열어젖힌 첫 수순년의 특음이.

2016년 1월 6일, 만민민족사에 글문자로 아로새겨진 이날의 역사적승리는 이미 기억되어있었으니 오늘날 전민군민의 실감속에 새겨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뜻깊은 진질이 가슴을 새지게 두드린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승리와 영광의 첫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첫 수순년의 장쾌한 특음으로 열어젖힌 이래로 온 세계가 주체의 해강국, 사회주의조선,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우러러 보게 하라!

김정은
2015.12.15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2016년이었다. 이렇게 우리 원수님의 뜻과 의지에 밝아온 새해의 승리의 혁명-주체조선의 첫 수순년시행공소식이였다.

마치 아침에 떠오른 태양에서 역만기다 배살이 퍼져가듯이, 거대한 지함을 안은 활화산이 무성케 분출하듯이 첫 수순년의 뒤흔에 이어 또다시 세계를 뒤흔드는 사변이 터졌다.

2016년 2월 7일, 우리의 자랑스러운 별, 지구관측위

성 《광명성-4》호가 하늘로 떠오른것이다. 3월에는 리명거리건설선봉로 원수님의 건담을 사는데 했고 4월에는 때두산일출봉년3호발진소환공의 보도가 전해졌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당력사에 특기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대히 열린 5월의 역사적사변은 얼마나 전세계를 격동시켰고 지상대지상장거리대전락판도르케트 《화성-10》시험발사의 성공을 알린 6월의 승전소식, 새해새로운 문명의 옷을 면책되고 존공의 자랑꽃피운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의 7월소식은 또 얼마나 이 시대를 들끓게 했는가.

그야말로 놀라운 속도로 사변이 터졌다. 8월에는 건락집수합 반도만수중시험발사의 완전성공과 리명거리-김정일주의청년동맹이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아안은 500만 영웅청년대군이 리치는 《영순출격》로 지구가 또 한번 드르 울었다. 9월에는 고산봉이 거저지도록 사파라봉이 리져 《혁명야사사파라》라는 선군 13정이 더욱 울렸다. 9월에는 고산봉이 거저지도록 사파라봉이 리져 《혁명야사사파라》라는 선군 13정이 더욱 울렸다. 9월에는 고산봉이 거저지도록 사파라봉이 리져 《혁명야사사파라》라는 선군 13정이 더욱 울렸다.

우리의 너자속구원수들이 쟁취한 월도소식 이 조선의 이름 만땅에 펼친 10월에 이어 11월에는 자연의 대제양을 행복의 선경으로 열어던진 전회회의의 대승리가 조국의 복면명에 새겨졌다. 우리 동에서 불고기를 신더미처럼 버둥터 만리마시의 새로운 이로운소리가 들려오는 속에 뜻깊은 이해의 마지막달에는 우리 당력사에 처음으로 되는 제1차전당중앙위원장대회가 성대히 열렸다.

참으로 해놓은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일이 품자고만 해도 승가를 정으로 차고넘친 문자그대로 요란한 한해였다.

사변의 전수도 놀라지만 그보다 더욱 세인을 경탄시키는것은 하나하나의 기적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서 크나큰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조국의 지위와 무게를 변화시키고 시대의 앞길에 새롭고도 밝은 궤도를 열어놓은 결정적인 장거들이라는 것이다.

첫 수순년으로부터 지상대지상장거리대전락판도르케트 《화성-10》, 《북극성》판도란, 핵탄두복합시험의 성과적인 진행으로, 이렇듯 국가핵무력완성의 최후판복합로복제의 혁신을 필장대로 주체의 핵강국, 자주의 핵강국에로의 집적적약을 안아온것으로 2016년은 민족의 역사에 가장 빛나는 해, 가장 위대한 해일것이다.

《조선은 세계 6대 수순년보유국이 되었다. ... 이제 조선도 유엔안전보장평화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세계가 한목소리로 격찬하고있듯이 보병용으로

원자탄을 이겼던 나라가 오늘날은 제국주의피수의 락살을 거머쥐고 통쾌하게 다물리고있으니 이것은 조선을 중심으로 세계가 도는 새로운 역학구조를 안아온 사변중의 사변이다. 오랜 세월 약소국의 실음을 숙명적으로만 받아들이어 왔던 이 나라 인민이 마침내 만민간의 속원을 풀것이 아닐랴 사회주의강대국만민을 비친 장쾌한 민족사적대승리가 아니겠는가.

강조와 번혁의 특과 길이에 있어서도 2016년은 종합적격력의 총폭발의 해였다.

우리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강령과 질풍같이 내달리는 속대 나라의 국방공업은 물론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양성이 일어났고 농업부문에서 조의 통창본이 요란히 울려나왔다.

밀집학다수학생이름 《명왕9》호에 대한 기본 소식이 이어 나라의 협동농들도 호젓한 메일을 안고 전례없이 끌어올렸다.

물고기가 없다면 바다에서도 만물감의 기적이 리져 황금해역사창조의 3년이 되는 올해에는 눈부신 이로운소리가 창조되었고 세계 인민은 《2016년은 조선족구의 해》라고 격찬할만큼 너자속구의 월도집적성공으로 제국주의의 창조를 통한 힘껏 열렸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건설의 모든 영역에서 전면적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린 만리마시의 요란한 출성이 국가경쟁력인 5개년전진목표의 통과가 열린 가슴에 안도의 세월이다.

우리의 2016년은 사회주의수호전, 인민수호전에서도 전례없는 전승의 특소성을 띠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얼마나 걸음걸음이 최악의 시련이었는가, 년초부터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의 수순년시행과 위상발사의 절고를 최악의 제제의 극악한 경제적봉쇄를 들이대었다. 여기에 자연의 대제양까지 겹쳐졌다. 다른 나라처럼 열매를 주지않았을 최악의 상황을 놓고 원수들은 《북조선이 인자심리적으로 상파에 빠질것》이라고, 이번에는 안될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이 그렇게도 악에 달쳐 비난하며 악랄하게 방해하였지만 북부전선에서의 승리의 뒤흔은 울려 퍼지고있었다.

시련보다 강한 조선의 힘, 죽음보다 강하고 그 어떤 천지봉파보다 더 강한 조선의 창조력을 증명하며 날과 달이 흐르는 속에 이 조선의 청년들과 인민들은 자강력의 푸사들로, 때두의 할바항진을 베풀까지 제철적인 신념의 강자들로 자라났다. 이 또한 그 어떤 천지봉파보다 더 큰 시대의 전파 번이 아니겠는가. 땅도 바다도 번하고 사람도 시대도 번하고 조국의 지위와 힘도 변한 이 모든 것이적인 사변을 놓고 우리 어찌

2016년을 위대한 해라고 격조준이 노래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자위적태극력으로 강국의 기쁨을 마련하고 자강력을 보강으로 끌어올리고 만리마의 기세높이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창조를 열어젖혔으니 이는 분명 새 조선의 탄생과도 맞먹는 사변이다.

반민란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눈부신 절정을 이룬 위대한 2016년이라는 격정이 리져나온다.

사회주의강국의 매년, 천년의 앞길에 더미들이 되고 초석이 되고 무한한 활력의 원천으로 되는 2016년의 승리가 내민 역사의 절흔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조선에 있어서 승리의 화가이며 제국주의에게는 멸망이 파하이라는것이다. 조선의 승리의 과학성을 말이나 구조가 아닌 자기의 눈부신 신념으로 증명하였다는데 바로 2016년의 역사적의의가 있다.

우리의 2016년이 그토록 위대한것은 바로 그것으로 하여 더 강대하고도 눈부신 조선의 역사, 사회주의강국의 최전성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있는데 있다.

승리를 밝히는 리정표를 가진 인민, 제국주의를 때려부실 투정의 보검을 들어내고 자기의 역전 힘을 억원한데다 다진 이 조선의 강한 억원을 글부시길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이제 맞이할 새해는 더 멋있고 그 다음해엔 더욱 눈부신것이다. 한대한 해가 끝없이 솟구쳐오를것이니 그렇게 조선은 머지않아 최후승리의 재물을 맞이하고야말리라.

위대하다, 2016년이여!

반민란역사의 절정우에 우리는 2016년, 그 이름을 위대한 해로 눈부시게 새기노라.

2

2016년의 이름이 위대한 해라면 그 이름을 쓰신 기적의 창조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이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1년 12달이 다는 자적인 시간으로만 흐르지 않았다.

세계가 본 2016년의 조선의 모습이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었고 2016년의 기적이자 우리 원수님의 백두산악과도 같은 비장파정지력의 승려,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오신 강행군의 승려였다.

원수님의 세계를 물거품으로 만든 리명거리건설의 선봉로 파언어느분께서 걸심하시었고 200일 전진투의 주라리방향을 함복도 북부피해부구전투로 전환시행에 대한 대응단을 파언 어느분께서 내리셨던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도 승리를 확신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땀의 의지를 그대로 말씀대로 하여 우주로 날아올랐을 우리 원수님 그대를 추억하시며 얼마나

뜨겁게 말씀하시었던가. 나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한 날인 2월 7일을 잊을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영원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시간표는 이렇게 그의 의지에 따라 전개되고 그의 눈부신 지략과 빛나는 예지로 하여 온갖 화가 달아나고 만복의 창조물들이 천년의 높이에서 초음속으로 수몰처럼 일떠섰다. 그의 꿈처럼, 그의 포부처럼 그야말로 멋지게!

그 이름부리가 새로운 보전산소공장, 류정안과중방병원, 나라의 첫 양묘공장-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과 같은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들이 문명의 화원에 아름답게 자리잡던 나라들을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우리 지금껏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비약의 세월에 산다고 즐겁게만 말해왔다. 허나 인민의 웃음으로 가득한 그 1년에 경애하는 원수님 천만교생을 장거리 끝으로 이들을 우리 정령 생각이나 해보았던가. 우리의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 인민의 만복의 새활을 길어주시며 펼쳐가신다.

쌍을 하눈에 담고 펼치던 바다를 이룬 살세워의 무한한 창조와 천년의 원바탕에 초석처럼 놓여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의 진정을 리치시며 하신 말씀이 있다. 자신께서 음악을 사랑하시는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문명하고 풍만한 정서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해서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 원수님.

인민! 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있어서 자신보다 귀중한 하늘같은 존재이고 한몸이 모래알이 되어 부러진대도 아낌없이 사랑과 정을 바치고있었다는 그의 온넝이고 삼 그 자체였다.

어이저서는 이 땅의 모든 승리를 인민이라는 두 글자로 새겨오신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기꺼이 부러처럼 분신하고 천만사지의 웃음을 위해서라면 교생도 락으로 여기시는 우리 원수님, 인민을 위한 마음은 얼마나 지극하시던지 하초령수로 상생한 그 환 소금품도 글처럼 달게 맛보셨으라.

정신 잊을수 없다.

조선인민군 1116호농장을 찾았으면 그날 활짝같이 실한 새 품종의 《명왕9》호 강령 이이사를 보시고서는 잘 익은 이 사과를 가지고가셨다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 인민을 기쁨을 속삭이는 그 풍년이사 이 얼마나 소중하셨으면 몇 걸음 가시다가는 꺼내보시며 크나큰 기쁨을 금치 못하셨으리라.

동해포구를 찾았으면 지난 11월에도 소금물에 구두가 찢는것도 아 망곳하지 않으시고 꽃김을 가시듯 용에 겨워 물고기바다를 거니신

우리 원수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그렇게 기쁨에 넘쳐계셨어도 그이를 우리로선 일꾼들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 여윌었다.

소금물에 젖은 그의 구두를 살피보시니 글세 그의 신발장이 퍼그나 닳았것 아니냐.

얼마나 험한 길을 많이도 걸으셨으면, 인민을 위한 길에 얼마나 자신을 잊으셨으면... 이렇게 외우느라나 우리 원수님 해쳐가시던 울물물한 최전연성호소의 들밭이며 가파로운 전로의 굽이굽이가 떠올라 소리없는 울음을 리드셨다는 조선인민군 8월 25일수산산악소 지해인 윤용일동무의 목소리.

《나는 우리 방아대에 찾아오시었던 최고사령관동지의 의류자락에 묻었던 풀뼉과 수수한 장갑, 강행군의 흔적이 려려한 신발을 정성 있게 감지 못합니다.》라고 격정에 울던 이면 마함도방아대 지회관의 전경도 그 얼마나 눈물을 자아냈던가.

천정 만사람을 울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강행군로정에는 인민이 아닌 배보다 미치 모르고, 죄는 남들이 더 많았으니 인민이여, 후손들이여, 그이께서 자그마한 고무패를 라시고 남바다를 헤쳐가시었던 그날의 사연을 부디 가슴에 깊이 새기시라.

물결높이 2~4m, 략날같은 물결기를 관두세우고 사정없이 달쳐드는 파도, 그 파도를 뚫고 달리던 고무패!

생각할수록 이 가슴이 저며든다. 우리 원수님 사생결단의 의지로 난 파도를 헤쳐가시던 그 시각 우리 리마 레사들이 아슬슬근기에 울렸던가. 그날 고무패를 라시고 갈리드온 찾으면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도 들었다가라고 하시며 또다시 고무패에 오르시려 할 때 일꾼들은 그날마 방안벽마당 억척같이 막나사시어 안다까지 아파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안민입니다. 여기는 최전연입니다!》

하지만 우리 원수님 경애도군인들을 기뻐하며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갔다는것을 알면 얼마나 심심해하셨는가고, 말리 고무패에 오르자고 하시니 앞장에서 배에 오르셨었다.

그렇다, 김사령위는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시었다. 우리의 2016년은 이렇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옹위, 인민사수의 눈물겨운 강행군의 날과 달속에 울려왔으니 온 한해 명사들속에, 인민들속에 제진 우리 원수님의 사랑의 손길 아래 온 나라가 당풍당의 뜨락이 되었고 경애하는 원수님과 천만군민은 열매야 맺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가 된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 따라가면 행복이 오고 승리가 온다!

이것이 2016년,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의 영웅적전군로를 끝함없이 달려온 천만군민의

대목의 촉박, 조선의 혼연일체의 영원한 배아리었다. 위대한 김정일시대의 기적으로 빛나는 함복도 북부피해부구전투에서의 대승리!

그것은 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선 인민을 믿고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으며 세상에 없는 혼연일체의 힘으로 안아온 기적이였다.

리명거리건설장에 깊숙이 박았던 삼을 불고 입시에 촉촉치며 함복도 북부피해지역에 전투포지를 정했던 우리의 인민군인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의 꽃방석을 안겨주고싶어 이들은 자기들의 전투현장에 이런 갑발을 써놓았다.

《소금물은 우리가, 웃음꽃은 인민이!》

어찌 두만강연안의 연사땅에서 이런 총정의 이야기가 펼쳐졌으랴. 단풍로 한지에 나뉘는 수새민들 생각으로 배식도 있으신 그의 가슴속에 명운들 아슴, 자신께서 상원로동계급에게 피해목우에 필요한 세밀트레싱신을 부탁하였다는것을 전달해주시고 하셨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뜻은 심장에 새겨안고 한말말에 상원땅에 달려갔던 지 원사들속에는 정양의 두 처녀도 있었다.

생산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기 위해 많은 지원물자를 준비했지만 그것만도 모자라는것 같아 로동계급앞에서 불같이 더운 선봉의 갑달도 함께 품고갔던 그를, 《우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려주십시오.》라고 걸심한 심정을 리충된 꽃김이 품고 육같이 아름답던 그 모습 지금도 눈에 삼삼하다.

어찌 그뿐인가. 우리 땅의 웅대한 구상을 말하며 자기 때두산기슭에서 우리의 열혈청년들이 역사의 땅 삼지연에 행복의 새 선경을 펼쳐갈 때 922전진실용대의 전투원들은 한몸을 내대며 세로전역에 사회주의대초원을 펼쳐졌다.

참으로 당과 수령을 믿고 사의주의를 믿는 위대한 인민을 노래하지 않고서는 2016년을 다 말했다고 할수 없으리라.

위대한 령도자와 위대한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힘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이고 이 힘이던 지구도 불어올리고 천년대적도 밟아내어 줄이리라. 조선의 2016년은 바로 이 혼연일체의 힘으로 승리했다.

우리 2016년을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영원토록 승리의 해를로, 소중한 로파서로 삼겨내어 새겨두고 오늘보다 더 좋아할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마다 백승의 년대기만을 더 높이 펼쳐리라.

인민은 이 시각 천만교생 다하시며 사랑하는 인민에게 승리의 열매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 우리 원수님 백승의 기념비마당 빛내주신 2016년 영원무궁할 영광을 드린다.

백 우 경



